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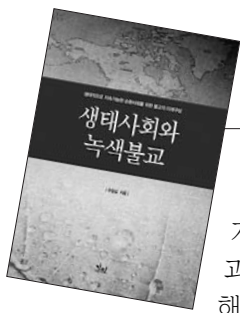
사진은 2012년 6월 20일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20'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모여 기념촬영 하는 모습.

2012년 6월 20일 브라질에서는 '리우+20' 회의와 민간위원회 회의가 동시에 열렸다. 120여 개국 정상과 5만여 명에 달하는 민간단체들이 모인 거대한 국제회의였다. 이 자리에서는 녹색 경제로의 전환이 논의됐다.



2012년에 열린 '리우+20' 민간위원회 회의 장면. 이 회의에서는 녹색 경제 전환에 대한 허구성을 비판했다.

연기적 가르침 '녹색불교'는 위기의 시대 해답



생태사회와 녹색불교
유정길 지음 | 아름다운 인연 펴냄 | 1만4천원

1990년 전후 시기는 사회주의의 붕괴로 사회변혁을 위해 수십년간 노력해 온 일력 보살들에게는 큰 혼돈과 좌절의 시기였다. 당시 변화를 분석하는 시각은 다양했지만, 소련이 붕괴하게 된 후속목한 체계 중 하나는 당연히 고르바초프의 사상에서 비롯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라라는 정책이었다. 개혁과 개방이었다. 이후 92년 브라질서 7만여 명이 모여 역사상 최대 국제회의로 기록되는 유엔환경회의(UNCED)가 열렸다. 회의는 인류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개발, 진보를 외친다면 오히려 스스로 위기와 절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제까지

당연시된 발전 방식은 지속 '불가능'한 것이며, 이제 그 방향을 바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유엔환경회의'를 했고 '리우선언'을 통해 지구와 인류의 새 방향을 제안했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전환'에 대한 이야기이다. 생명, 생태, 평화, 녹색의 목적은 단지 자연환경 복원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관이며 미래의 사상이라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붕괴는 수많은 사회운동에 비전과 전망의 혼돈을 초래하면서 과거 과제와 새 과제 사이에서 혼란을 유발했다. 근대적 과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탈근대적 세계관에 입각한 수직성장 선형발전론으로 미래세대가 이용할 자원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현대대의 편익을 위한 자원

근대와 탈근대를 동시에 포월(包越)
녹색불교의 패러다임은 미래의 희망
녹색 및 생명운동...진보적 계승자 돼야
녹색적 관점으로 불교와 사회 의제 재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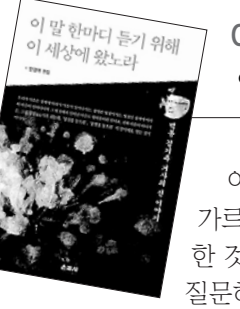
탈근대적 과제는 명백히 서로 상반된 관계에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명확하게 탈근대적 과제의 입장에서 근대의 문제를 재조명하며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또한 더 많은 풍요, 생산력의 발전, GNP·GDP라는 생산(Product)중심, 생산력주의의 진보는 그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과거의 진보는 직선적 세계관에 입각한 수직성장 선형발전론으로 미래세대가 이용할 자원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현대대의 편익을 위한 자원

수탈을 강행하고, 다른 생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아, 불교적 시각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은 다수의 반대를 외면한 제 4대강을 개발하고 원전을 당연시하는 토건족과 같은 논리의 세계관에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또한 저자는 녹색 및 생명운동은 기존의 약자에 대한 배려, 평등과 민주주의에 관한 한 이제까지의 진보적 사회운동의 연장선에 있고 그것의 계승자이길 바란다. 그러나 기존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물질적 풍요가 곧 우리의 미래라는 시각에서

'생산력의 고도화'를 진보라고 하는 생각은 명확하게 생태주의와 녹색, 생명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 이제 진보는 진화해야 하며 '진보'라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해야 한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생명평화, 생태의 관점에서 이제까지의 사회적 의제를 낱알이 새롭게 해석한다. 불교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 또한 같다. 정치, 생태적 세계관과 분권화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교육은 자연과 더불어 인간이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며, 복지도 생산력이 주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복지에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저자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녀평등은 곧 남성화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뛰어넘어 여성성의 사회화를 제기하기도 한다. 동물에 대한 권리, 과학기술에 대한 입장, 토건과 국토개발에 대한 원칙 등도 점점하

고, 생태적 시각에서 통일과 남북문제를 재조명한다. 그는 불교의 근본으로 향한 노력과 현실로 가려는 노력 사이의 중도적인 통찰을 중요시 생각한다. 한때 불교 내의 대립구도를 놓고 "민주대 반민주"라는 주장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사회의 논리이며 본질에서 "불교적이나 비불교적이나"를 명확히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정법을 올바르게 구현하는 것이 곧 진정한 불교개혁이라고 그는 말한다. 시스템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의 개혁은 중요하지만 역시 근대적이다. 그러한 근대적 전망을 포괄하는 탈근대적 전망을 동시에 끌어안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포월(包越)이다. 그래서 정신과 내용 없는 시스템만을 문제 삼기보다는 불교의 깨달음, 정신, 신앙과 눈 맑은 심신, 종교성 등을 깊이 살펴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백봉거사 '새말귀'가 필요한 이유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안경애 편집 | 운우사 펴냄 | 1만5천원

이 책은 백봉의 가르침 가운데 요긴한 것들을 간추려서 질문하고 답하는 대화의 형식을 취해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백봉은 기존의 전통적 화두수행법은 주로 출가자들을 위한 방법으로서, 그것이 가지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당장 오늘을 걱정하고 내일의 삶을 걱정해야 되는 일반 재가자들이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밥 먹을 때나 대소변을 볼 때조차도 화두에만 집중해야 하는 전통 화두법은, 생업

에 종사하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이끌며 소소한 삶을 살아가는 일반 재가자들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백봉은 그 문제의 해결은 바로 우리 모두의 권리라 하고 말한다. 이것이 새말귀가 필요한 이유이고, 그가 거사봉 불교를 주장하는 이유이다. 백봉은 철저한 자기 살림살이와 독창적인이면서 명쾌한 선지로 학인들을 이끌어 주었으니, 그 가르침의 핵심은 '허공으로서의 나'이다. 그는 허공으로서의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닌 도리를 믿고 결정해 그대로 행하면, 일하고 밥먹고 빨래하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전성의 도리가 되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초기불교와 명상의 상관관계는?



초기불교, 94가지 주제로 풀다
임승택 지음 | 도피안사 펴냄 | 1만5천원

저자는 초기불교에 대한 최근의 관심이 정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특정 부파의 주석문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태도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쉽지는 않지만, 초기불교에 대해서는 니까야 자체로 해명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본다. 니까야는 길거나 짧은 수많은 경전들로 이루어져 있다. 거기에는 붓다 자신의 가르침과 행적은 물론 주요 제자들의 교리해설과 실천방식에 대한 언급까지도 포함된다. 또한 동일한 가르침을 이질적인 방

식으로 중복해서 기술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한 제자집단들 사이의 상호 모순적인 견해라든가 긴장관계에 대한 묘사도 나타난다. 이러한 니까야의 구성은 초기불교의 가르침이 정연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체적인 현실에 비추어 초기불교를 적용해 보게 하는 훌륭한 소스가 된다. 저자는 초기불교를 전공하는 연구자인 동시에 위빠사나와 요가 명상에 주력해 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이와 같은 경력과 관심을 반영한다. 매 주제마다 명상의 실천과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해명하기 위해 고심했다. 김주일 기자

선문과 교문 일치시킨 회통불교 설명



인간 세계의 근본을 밝히다
정목 스님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2만원

이 책에서 보이는 <원인론>은 화엄종의 제5조이며, 선교일치를 주창한 규봉종밀(圭峰宗密: 780~841, 당나라)의 저술이다. 제명은 '인간세계의 근본을 밝힌 논서'라는 뜻이다. 논주의 사상적 기반을 들어 일명 (화엄경 원인론)이라고도 부른다. <원인론>은 우리 불교를 유교와 도교 및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서, 교법의 깊이를 뜻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니, 비교종교학의 효시라 할만하다. 또한 문학적 요소를 풍부하게 갖추고, 인간세계의 역사를 통찰했으며, 세계관과 인생관을 이

상적으로 밝혔으니, 문·사·철의 모범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논>의 교상판석은 모든 교법을 망라했고 옛 단점을 보완해, 어느 교법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논술했으니, 팔만대장경 축소판이라 부를만하다. 그러나 그 내용이 간략하고 뜻이 어려우 일반대중이 보기에는 쉽지 않았다. 이 책은 먼저 중요한 교상판석들의 개요를 보였다. <원인론>은 원문을 실어서 번역했으며, 논주의 글과 해설문을 구별하기 쉽도록 이색을 사용했다. 정일법사가 해설한 (발미톡)은 원문을 번역해 옮기고, 중요한 글은 원문을 실었으며, 각 장마다 요점을 정리했다. 김주일 기자

지구촌 최대 이슈, 360일이 일년이 되는 대변혁으로 유불선이 하나로 되는 대우주에 초 공릉 빛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심경신 도통비법 당신에 운명과 팔자를 바꾸는 최고급 인생으로 사는 도인 제왕 스승되는 천하비밀 수육보영진법사구계 득도 대법회

지구촌 변동으로 일년이 360일이 되는 대변혁 대우주의 빛으로 유불선이 하나로 되는 원 방 각 진법으로 120세 360세 도전 중상대운으로 비구니 보살에게 성 불 득도 없는 무여말반을 넘어 우타라의 해인도법 초우주의 공릉 진법으로 성 불 득도하는 전만고 후만고의 비밀법 한문과 한글은 우리말과 글로 천하를 다스렸던 단군 기원전 1565년을 전 세계를 지배했던 예성 지금의 충주 대한 마한 병한 진한 지구촌을 사통분하여 우리글 정음 38자를 삼세황제 BC 2182년 5월에 가림토로 사용 신라 설총께서 36자로 세종대왕께서 28자를 내 놓으신 것을 ○□△·가감승제를 빼고 24자만 사용하고 영어 26자에 밀리고 있으니 이제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말과 글을 28자로 다시 찾아 우리 대한민국의 국문이 전 세계 지구촌을 다스리는 일등나라 일등국민이 되는 천하 대 도법으로 지구촌 천지개벽에 생명을 연장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인 것이고 대한민국을 사용하는 근본인 것이다. ※ 심경신일 8회에 걸쳐 대우주에 초 공릉과 특수 기공법을 받아 천지인이 하나 되는 법 첫째, 초우주의 특수 기법을 받아 만병을 고치는 공릉 법이고, 둘째, 각종 종교인들이 받아 인체의 세포를 살리는 법이다. 즉, 도인이나 신선으로 사는 중상대운 팔자를 바꾸는 비법으로 이법은 역대 신선 도인들의 수행한 비법이며 경신일 마음을 정하고 초우주의 기법을 본인에게 접촉하여 마음에 병 정신에 병 육신에 병 잡신에 병 염혼에 빙의 병을 제도할 능력이 되는 심경신 진광의 초 공릉법이며 한방약방으로 못고치는 귀신병 중풍 치매 뇌와 정신병 기억 뇌하수체 신장 담낭 오장 육부 사대육신 중앙등으로 수행기도 마장을 넘어 부귀

장수를 해결하는 초우주의 빛의 에너지로 도가의 기법 불가의 기법 신선의 기법 일체 유불선이 하나로되는 천하 대도법으로 운명과 팔자를 바꾸는 비법인 것이다. ※ 이법은 대우주의 태양의 진법과 초우주의 공릉기법을 수행자의 마음에 문을 열어 현문에 넣어 대추천 소주천을 운행시켜 고질병도 해결하는 하늘명에 감춰진 비법, 운명과 팔자를 고쳐 지구촌 도인 제왕 스승 되어 천하를 다스리는 최고의 도통 비법인 것이다. (1) 관제를 제거하는 비법 전수 (2) 모든 잡신과 귀신 병을 제도하는 법 전수 (3) 천신, 만신, 마귀, 객귀, 병 소멸법 전수 (4) 임신, 불임병과 아들 낳는 비법전수 (5) 재산을 보호하고 부자 되는 주문법 전수 중사자 철학 및 어느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특수법. 이 법은 평생 직업에 구매 받지 않은 인격완성 도인되는 비법인 것이며, 최고의 지도자 인격완성 스승되는 법이자 수행인 것이다. ■입제일 : 2013년 10월 20일 일요일 밤 9시 (간편한 옷 필기도구지참) ■해제일 : 2013년 10월 21일 월요일 밤 9시 ☎ 02)821-6622 / 010-3239-3110 / 010-7228-8567 010-2481-3110 / 부산 010-8533-1601 농협 029-01-167866 곽한영 유불선이 하나로 되는 응중 미륵달마 불선도 총본산 심경 세계불교 들마조계중진 불선원 태양의 집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괄 설치비 : 1,800,000원
- 법당전용 스피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고성능 구즈넥마이크

● 앰프 구성 : 스탠드오픈 300와트 1대 · 최급법당 전용 스피커 1세트 · 소형 미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 헤드셋 1세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 1대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음향연구자, 무선설비기사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팩스 (02)2601-8284